

대구부 동상면 호적의 고유어계 노비명에 관한 계량적 고찰*

車載銀**

- | | |
|-----------------------|------------------------|
| I. 서론 | IV. 고유어계 노비명의 의미 부류 분석 |
| II. 고유어계 노비명의 판정 방법 | V. 결론 및 과제 |
| III. 고유어계 노비명의 계량적 분석 | |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고유어계 어근을 중심으로 17~19세기 대구부 동상면 호적의 노비명을 분석하고 여기에 나타난 작명 방식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고유어 노비명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비보다는 남노명에서 절대 빈도와 유형 빈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비명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요 원인은 ‘助是(조이)’의 비율이 높은 데서 찾을 수 있다. 고유어 노비명의 구조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해 보니 접미 파생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접미사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고빈도 어근과 파생 접미사의 목록은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근과 접미사 목록이 가지는 한정성은 노비명의 전형성과 연결된다.

고유어 노비명을 의미 부류로 분석한 결과, ‘단산 기원, 더부살이, 도구, 동물, 소

* 이 논문은 ‘대구호적 노비명의 작명 방식에 관한 고찰—고유어와 한자 어근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2008년 4월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주관 학술대회 대구호적과 동아시아 인구자료)된 바 있다. 본고는 앞 발표문을 고유어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고쳐 쓴 것이다.

** 경기대 국문과 교수.

유, 암석, 아무개, 외모'의 의미 특성이 남노명과 여비명에 공통되며 여비명에서는 무명성(아무개)이, 남노명에서는 금기어의 사용이 특징적임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人性보다 物性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고유어계 노비명 작명 방식의 특징이다.

• 주제어

동상면 호적, 고유어 노비명, 작명 방식, 빈도, 계량적 분석

I. 서론

본고의 목표는 17~19세기 대구부 동상면 호적의 고유어계 奴婢名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나타난 작명 방식의 특징을 어근의 의미 부류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동상면 호적의 노비명은 正音이 아닌 借字나 造字로 표기되어 있어¹⁾ 국어사 연구 영역 중 고유 명사 표기에 속한다. 고유 명사를 차자로 표기하는 방법은 고대 국어 시기는 물론 정음 창제 이후에도 지속되어 20세기 초까지 이어졌고²⁾ 현존하는 戶籍이나 分財記 등에도 고유 명사 표기 자료가 상당수 남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특히 차자 표기된 奴婢名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로는 崔範勳(1977)을 비롯하여, 崔範勳(1980), 曹圭泰(1980), 조규태(1981), 金敬淑(1996), 박준규(2007) 정도가 있다.

崔範勳(1977)은 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문헌 자료(佛經의 施主秩, 奴婢文書, 古文書, 碑石 및 기타 문헌)에서 차자 표기 인명 11,350개를 찾아 해독한 후 인명의 作名觀, 차자의 분포와 빈도, 고대 차자 표기와의 비교 등을 다각도로 연구한, 이 분야의 선도적 업적이다. 이어진 崔範勳(1980)은 20세기 초의 除籍簿를 대상으로, 박준규(2007)는 분재기를 대상으로 노비명을 연구한 것으로 연구 방법상 崔範勳(1977)에 제시된 의미적 분류 틀을³⁾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曹圭泰(1980)는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奴婢名을 어학적으로 분류한 것이고 조규태(1981)는 민적부의 여자 이름을 분석한 연구이며 金敬淑(1996)은 단성 호적 대장에 나타난 인명을 분석하고 있다.

- 1)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이 借字, 한자나 한자의 부수 등으로 새 글자를 만들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이 造字이다.
- 2) 1920~30년대 민적부의 인명 표기도 고유 명사 표기로 볼 수 있다.
- 3) 崔範勳은 고유 인명의 작명관을 '動物類, 植物類, 容貌類, 性格類, 場所類, 時間類, 器具類, 巖石類, 祈願類, 冢·부랄類, 民俗類, 干支·數字·四季類'로 분류하였다. 『漢字借用表記體系研究』, 『한국학연구총서』 12,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1997.

이상의 선행 연구는 차자 표기 인명 연구에 큰 디딤돌이 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있다. 첫째는, 어원 추정의 자의성이다. 가령 崔範勳(1977)에서는 ‘古代’를 ‘(자식을) 고대하다’의 ‘고대’로, 박준규(2007)는 ‘淡伊’를 ‘심심이/습습이’로, 曹圭泰(1980)는 ‘勿才’를 고유어계 어휘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둘째, 주로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던 앞선 연구들은 자료의 질적 분석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연구 방법의 한계로 인해 계량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전산화된 대구 호적 자료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유용하다. 이 자료의 의미는 ‘동질성’과 ‘전산화’라는 두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다. 16~19세기 자료가 주가 되기는 하지만, 崔範勳(1977)의 연구 자료에는 고대, 중세, 근대 국어 자료가 섞여 있다. 반면 동상면 호적 자료는 17~19세기 자료로 국어학의 시대 구분에서 근대 국어 시기와 일치한다. 또 동상면 호적 자료는 공간적으로 대구 동상면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대구 지역의 방언사 연구에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상면 호적 자료는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산화된 동상면 호적 자료에 보이는 고유어계 노비명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후 여기에 나타난 작명 방식의 특징을 기술하려 한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고유어계 노비명인지를 판정하는 일인데, 본고의 2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대구 호적의 고유어계 노비명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의미 부류를 중심으로 작명 방식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5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II. 고유어계 노비명의 판정 방법

동상면 호적의 노비명을 읽는다는 것은 차자로 표기된 근대 국어 대구 방언을 근대의 중앙어나 현재 경북 방언으로 최대한 가깝게 再構한다는 의미이

다. 근대 국어 시기에 영남 지방에서 간행된 문헌도 있지만 현존하는 근대 국어 자료의 대부분이 중앙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상면 호적 노비명은 一字一音を 기본으로 訓讀, 訓假, 音讀, 音假 등의 차자 표기의 일반 원리를 통해 읽게 되는데,⁴⁾ 이렇게 생성된 문자열에 음운, 형태,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고유어(근대국어, 방언을 포함한 현대국어)가 존재할 때 고유어계 어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⁵⁾ 가령 ‘光自里’는 ‘訓假-音假-音假’로 [빛자리]라는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고 ‘빛자리’는 ‘빛자루’의 경상 방언 형에 해당하므로 고유어계 어근으로 판정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유어계 노비명의 목록을 얻기 위해 崔範勳(1980), 金敬淑(1996) 등의 기존 연구 결과를 참조하되, 고유어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어원 추정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 <표 1>과 같은 절차를 밟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1> 고유어계 어근 판정의 절차

점검 항목	결과	대응 어근	인명 예	분류	비고
① 訓讀·訓假(+音假)로 고유어 대응이 가능한가?	예	쇠 빛자리	金突[쇠돌] 光自里[빛자리]	고유어	빛자루 (경상방언)
①' ①에 대한 同音異字나 생략된 글자가 있는가?	예		今突[금돌/쇠돌]	불확실 어근	

(다음 면에 계속)

- 4) 南豊鉉(借字表記法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1; 단국대 출판부, 1984, 15면)에서는 차자 표기 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音讀字: 借字를 音으로 읽고 그 원뜻도 살림.
 音假字: 借字를 音으로 읽되 表音符號로만 씀.
 訓讀字: 借字를 訓으로 읽고 그 원뜻도 살림.
 訓假字: 借字를 訓으로 읽되 表音符號로만 씀.
- 5) 노비명은 ‘(接頭辭) + 語根 + (接尾辭)’의 단어 구성을 가지는데, 대다수의 노비명은 ‘어근+ 접미사’ 구조이고 의미의 중심이 ‘어근’에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어근을 중심으로 고유어계 노비명을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德岩外[덕바외]’는 ‘한자+ 고유어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고유어계로 판정된다. 고유어계 어근에는 대응되는 고유어가 하나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笈金’의 ‘笈’은 ‘갈(칼, 刀)’에도 대응되고 ‘갈-(磨)’에도 대응되지만 어느 쪽이든 고유어계 어근으로 볼 수 있다.

점검 항목	결과	대응 어근	인명 예	분류	비고
② 末音添記가 있고 고유어 대응이 가능한가?	예	밤	栗音金[밤쇠]	고유어	
②' ②에 대한 同音異字나 생략된 글자가 있는가?	예		栗金[밤쇠/울금]	불확실 어근	栗音金
③ 造字가 있고 고유어 대응이 가능한가?	예	돌	厝金 [돌쇠]	고유어	
④ 音假로 고유어 대응이 가능한가?	예	강아지	江牙之[강아지]	고유어	
④' ④에 대한 同音異字나 생략된 글자가 있는가?	예		江伊[강이]	불확실 어근	
⑤ 音讀만이 가능한가?	예	갑(甲)	甲厝[갑돌]	한자어	干支

〈표 1〉은 고유어 어근과 한자어 어근을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된다. 즉, 어떤 어근이 혼독, 훈가, 음가로 읽힌다면 고유어일 가능성이 높으며 末音添記나 조자가 사용된 경우에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제 노비명 읽기의 실례를 항목별로 살펴보자.

① 訓讀·訓假(+音假)로 고유어 대응이 가능한가?

‘金, 巖, 石’ 등 구체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자 표기에서 혼독된 전통을 가진 한자는 혼독 가능성이 높다.⁶⁾ 다만, ‘金突[쇠돌]’에 대한 ‘今突’, ‘屎金[똥쇠]’에 대한 ‘時金’처럼 同音異字를 사용한 경우에는 ‘今’이 혼독 [쇠]인지 음독 [금]인지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불확실 어근’으로 처리하였다.⁷⁾

② 末音添記가 있고 고유어 대응이 가능한가?

근대국어의 고유어는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6) 19세기 말의 사당 ‘巖德’은 ‘바우덕’으로 불렸는데 이는 혼독의 전통을 보여주는 예이다.

7) 물론 時金을 [똥쇠]로 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동음이의자로 표기되면 의미적 연관이 끊어지면서 음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조이]로 읽혔던 ‘沼史’는 독립신문에서는 음으로 읽어 [소사]로 나타나는데, 이는 음독화의 예이다.

일곱 개 자음으로 실현되는데,⁸⁾ 대구 호적 자료에서 이들 중성에 대한 末音 添記가 확인된다. 예를 들면 禾 ㄱ 介[숙개], 自 ㅍ 老 末[잔노미], 次 石 乙 伊[차돌이], 栗 音 金[밤쇠], 古 邑 男[곱남], 屈 叱[구북-], 斗 應 去 里[등거리]가 있다. 말음 첨기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고유어로 볼 수 있으나 ‘他 邑(塔)’과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⁹⁾

③ 造字가 있고 고유어 대응이 가능한가?

한자나 한글 자모를 이용하여 고유어를 표기한 경우를 모두 조자로 규정할 수 있다. ‘響 同[감동]’의 ‘響’, ‘疇 古[돌고]’의 ‘疇’, 耋 男[굿남]의 ‘耋’, 響 同[설동]의 ‘響’, 豊 金[볼쇠]의 ‘豊’, 齡 卜[엇복]의 ‘齡’, 蓀 金[늑쇠]의 ‘蓀’, ‘厶 未[올미]’의 ‘厶’ 등이 고유어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조자이다. 이러한 조자들이 한자나 한자의 부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반면 ‘畧 去 非[독거비]’의 ‘畧’은 한자 ‘斗와’ 정음 ‘ㄱ’으로 이루어진 조자이다.

④ 音假로 고유어 대응이 가능한가?

[강아지]로 읽히는 ‘江 牙 之’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 형태 변형이 심한 ‘江 伊, 江 致’의 경우에는 어근 ‘江 牙 之(犬)’의 의미 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불확실 어근’으로 분류하였다. ‘老 郎[노랑], 吉 介[길개], 次 疇[차돌]’은 音假일 가능성이 높지만 음독(늙은 여자, 길한 사람, 둘째 아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 따라 일단 음가자로 처리하였다. 또 ‘檢 孫’처럼 ‘儉 於 疇[검어+돌]’, ‘檢 云[검+은]’과 같은 활용형을 통해 ‘검-’이 동사 어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檢 孫’의 ‘檢’을 고유어 ‘검-(黑)’의 음가자로 판정하였다.

⑤ 音讀만 가능한가?

유교 이념, 干 支, 壽 命, 순서, 계절, 추상적 속성 등을 의미하는 한자어는 음독자로 판정하였는데, 德 世, 甲 疇, 命 男, 一 男, 秋 三, 福 伊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福, 業’처럼 한자의 훈과 음이 같은 경우도 음독자로 판정하였다.

8) 표기법의 전통에 따라 [ㄷ]이 ‘ㅅ’으로 표기되는 점을 제외하면 현대 국어와 같다.

9) ‘塔’은 訓蒙字會에 ‘塔 답 답’으로 나와 있다. 훈과 음이 같으니 ‘他 邑’은 훈을, ‘塔’은 음을 표기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고유어계 노비명을 추출하고 음운, 형태, 의미적 대응이 비교적 분명한 예를 의미 부류별로 나눈 후 계량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1>에 제시된 기준이 주관의 한계를 극복한 것은 되지 못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설부른 어원 추정의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고유어계 노비명의 계량적 분석

1. 전체 빈도

동상면 호적의 전체 레코드(record) 수는 181,391개이다. 이 자료의 '職役' 필드를 대상으로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奴*와 *婢*로 검색한 결과 男奴 이름이 23,181개, 女婢 이름이 38,196개로 집계되었다.¹⁰⁾ 남노와 여비를 각각의 파일로 저장한 후, 각 파일을 '名' 필드로 정렬하여 셀이 비어 있거나 셀에 하나 이상의 'x'가 포함된 경우를¹¹⁾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남노 이름 23,041개, 여비 이름 37,944개, 총 60,985개의 노비명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노비명 60,985개를 대상으로 <표 1>의 절차에 따라 고유어계 어근을 판정한 결과, 남노 이름 4,998개, 여비 이름 7,972개를 얻었다. 이제 전산화된 원 자료의 '名' 필드를 기준으로 한 유형 빈도(type frequency)를 남노와 여비로 나누어 보이면 다음 <표 2>와 같다.

10) 권기중에 의하면, 노비명의 전체 통계를 얻으려면 직역난이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는 노비명까지 모두 채워서 통계 처리하는 것이 옳다. 더 엄밀히 말하면, 직역 필드에 '免賤'으로 표시된 인명까지 노비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필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일단 원문의 직역에 노비로 표시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권기중, 「대구호적 전산자료 소개」, 『대구호적과 동아시아 인구자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8면.

11) 'x'는 원문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2〉 고유어계 어근의 빈도

	남노	여비
총 출현 빈도	4,998	7,972
名の 유형 빈도	1,152	957

위 표를 보면, 고유어계 어근의 총 출현 빈도는 남노가 4,998이고 여비가 7,972로 절대 빈도는 여비 쪽이 더 높다. 반면 남노명 전체(23,041)에서 고유어계 비율은 21.6%, 여비 전체(37,944)에서 고유어 비율은 21%로 상대 빈도는 남노명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名’ 필드를 중심으로 유형 빈도를 비교해 보면 ‘남노(1,152유형) > 여비(957유형)’의 경향이 더 확실하게 보인다. 이것은 여비보다 남노의 이름이 더 다양하고 종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이름을 가진 여비들이 많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2. 고빈도 노비명

이 절에서는 ‘名’ 필드에서 추출한, 빈도 10이상 노비명의 유형 빈도와 누적 빈도를 남노와 여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 3〉은 빈도 10 이상의 남노 이름을 보인 것이다.

〈표 3〉 빈도 10 이상의 남노명

名	근대국어	빈도	名	근대국어	빈도	名	근대국어	빈도
淡沙里	담사리	287	彳男	돌남	24	件里山	바(번)리산	14
彳伊	돌이	217	彳先	돌선	23	莫山	막산	14
彳金	돌쇠	78	老未	노미	23	唵彳	늑돌	14
厚邑氏	두텁씨	70	小斤者未	자근노미	23	唵孫	늑손	14
莫男	막남	69	莫立	막립	23	嚮未	가미/더미	14
金伊	쇠	66	文里金	그리쇠	22	甘發	감발	13
屎伊	똥이	56	金夢	쇠몽	22	檢同	검돌	13
乞牙是	걸아이	52	彳夢	돌몽	20	彳	돌	13
江牙之	강아지	51	麻堂	마당	20	彳三	돌삼	13
介男	개남	49	唵之	개씨	20	嚮立	굿립	13
作之	작지	47	唵彳	늑돌	20	彳男	언남 ¹²⁾	13

(다음 면에 계속)

名	근대국어	빈도	名	근대국어	빈도	名	근대국어	빈도
小斤老未	자근노미	45	芻立	돌립	20	自ㄹ立	즌립	13
介伊	개 ¹³⁾	44	麻堂金	마당쇠	19	彘未	올미	13
自者未	즌노미	43	之夫同	지부동 ¹⁴⁾	19	黍奉	굿봉	12
岔同	개쌍	43	厚邑種	두텁씨	19	北宋	북설	12
莫彘	막돌	42	菴山	눅산	19	岳只	아기	12
次彘	츠돌	41	甘同	감동	19	莠三	눅삼	12
牙只	아기	40	芻無致	돌무치	18	者晉奉	줍봉	12
加八里	더파리	37	岩回	바회	18	次芻伊	츠돌이	12
道也之	도야지	37	菴奉	눅봉	18	介	개	11
於屯	어둔	37	菴先	눅선	18	介奉	개봉	11
件里男	바(ㄹ)리남	35	己里金	기리쇠	18	己里男	기리남	11
老郎	노랑	33	金彘	쇠돌	17	夫億	부억	11
件里金	바(ㄹ)리쇠	32	彘奉	돌봉	17	松牙之	송아지	11
莫龍	막룡	30	於屯金	어둔쇠	17	峇彘	줍돌	11
菴金	눅쇠	30	助是	조이	17	菴介	눅개	11
黍彘	눅돌	28	介金	개쇠	17	菴金	눅쇠	11
菴三	눅삼	27	介屎	개쌍	16	菴暹	눅섬	11
談沙里	담사리	26	介助之	개조지	16	乞伊	걸이	10
芻作	돌작	26	件里同	바(ㄹ)리동 ¹⁵⁾	16	馬乙夫里	말부리	10
莫金	막쇠	26	道致	도치	16	莫用	막용	10
岩外	바외	25	斗應乞	등걸	16	不伊	불이	10
自老未	즌노미	25	黍男	굿남	16	於屯伊	어둔이	10
菴男	눅남	25	芻石	돌석	16	者晉彘	줍돌	10
江床	강상	24	菴同	눅동	15	누적 빈도: 2,897		

- 12) 이 어형은 ‘엇(得)-+ 남→언남(비음동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 13) 介伊의 ‘伊’를 접미사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개[kaj]’의 활음 [j]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 14) 金敬淑은 외모적 특징(기우뚱한 모양)으로 해석하였으나(김경숙, 『漢字研究—丹城戶籍大帳을 중심으로』, 중문출판사, 1996)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음독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단 고유어로 처리하였다.
- 15) 최범훈은 ‘件里’를 ‘그릇’으로 본 반면(최범훈, 『漢字借用 固有語人名表記 調査研究—忠北清原郡 除籍簿를 資料로』, 『國語學』 9, 국어학회, 1980), 金敬淑은 ‘버리-(棄)’로 보고 있다(김경숙, 앞의 1996 책). 여비 이름에 더 많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릇’(바리)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높지만 ‘菴彘(얻+ -돌)’과 같은 인명에서 동사 어간 ‘얻-(得)’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의미적 짝인 ‘버리-’도 고려할 수 있다. 일단 두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위 <표 3>을 보면 빈도 10 이상인 남노명의 누적 빈도는 2,897개로, 이들 남노 이름이 전체 고유어계 남노 이름(4,998)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9%에 이른다. 남노 이름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은 ‘淡沙里[담사리]’인데,¹⁶⁾ 談沙里로 표기된 것(26개)까지 고려하면 형태적으로는 [담사리]가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甄伊[돌이]’가 많은데, 이 인명이 ‘돌+ -이(접미사)’의 구성인 것과 甄金[돌쇠], 甄男[돌남], 甄先[돌선] 등을 고려하면 의미상으로는 ‘돌’ 계열이 ‘담사리’보다 순위가 더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 <표 4>는 빈도 10 이상의 고빈도 여비 이름을 보인 것이다. 빈도 10 이상인 여비명의 누적 빈도는 6,275개로, 이들 고빈도 여비 이름이 고유어계 여비 이름(7,972)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7%이다. 이는 남노의 누적 빈도 비율인 57.9%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여비 이름의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실증하는 예이다.

<표 4> 빈도 10 이상의 여비명

名	근대국어	빈도	名	근대국어	빈도	名	근대국어	빈도
助是	조이	2633	菴進	굿진	27	於仁連	어린년	15
召史	조이	437	甄分	돌분	26	介丹	개단	14
莫郎	막랑	230	甄心	돌심	26	甄今	돌금	14
早晨	조이	215	者音分	놈분	26	菴德	굿덕	14
莫女	막녀	130	甄女	돌녀	25	小斤女	자근녀	14
自 連	존년	123	斗郎	두랑/말랑	24	菴進	굿진	14
件里德	바(빅)리덕	93	菴郎	굿랑	24	菴切	굿절	14
莫禮	막례	87	小斤連	자근년	24	甘進	감진	13
莫心	막심	85	件里	바(빅)리	23	己里德	기리덕	13
莫乃	막남	69	菴女	굿녀	23	菴心	굿심	13
江牙之	강야지	63	菴春	굿춘	23	自 春	존춘	13
菴女	눅녀	55	菴心	눅심	23	助時	조이	13
莫切	막절	53	淡沙里	담사리	22	禾里德	수리덕	13
牙只	아기	53	自斤連	자근년	22	菴介	눅개	13
介德	개덕	45	自 禮	존례	22	菴女	눅녀	13
件里介	바(빅)리개	44	件里進	바(빅)리진	21	菴今	눅금	13

(다음 면에 계속)

16) ‘다므사리, 다믄사리’에서 ‘-, ·’가 줄어 ‘담사리’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에 備에 대해 ‘다므사리 용’으로 해설하였다. ‘다믄’은 ‘더불어, 같이’의 뜻을 가지는 부사이다.

名	근대국어	빈도	名	근대국어	빈도	名	근대국어	빈도
介伊	개	43	苒郎	눗랑	21	芴春	돌춘	12
苒切	눗절	43	自德	존덕	21	齋切	긋절	12
莫助是	막조이	41	莫德	막덕	20	伐於之	벌어지	12
苒丹	눗단	39	件里春	바(브)리춘	19	阿只	아기	12
莫今	막금	37	峇玉	좁옥	19	者音郎	좁랑	12
莫進	막진	37	斗今	두금/말금	18	造是	조이	12
齋禮	긋례	36	彥女	언녀	18	菴丹	눗단	12
介進	개진	35	者音進	좁진	18	介	개	11
菴分	눗분	34	自分	존분	18	老郎	노랑	11
甘德	감덕	33	光自里	빛자리	17	齋每	긋매	11
莫春	막춘	33	莫丹	막단	17	岳只	아기	11
自今	자금	33	莫分	막분	17	自卍今	존금	11
者音德	좁덕	33	苒每	눗매	17	菴今	눗금	11
菴進	눗진	33	厚邑氏	두텁씨	17	菴每	눗매	11
菴德	눗덕	32	菴郎	눗랑	17	甘分	감분	10
峇心	좁심	31	菴禮	눗례	17	介良	개량	10
介分	개분	30	古分	고분	16	芴進	돌진	10
峇女	좁녀	29	莫介	막개	16	斗江	두강/말강	10
菴女	눗녀	29	甘春	감춘	15	小助是	자근조이	10
芴禮	돌례	28	件里今	바(브)리쇠	15	峇切	좁절	10

누적 빈도: 6,275

〈표 4〉를 보면 여비 이름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은 ‘助是[조이]’임을 알 수 있다. ‘助是’로 표기된 것이 2,633개인데, 여기에 ‘召史(437), 早是(215), 造是(12)’로 표기된 것까지 합치면 3,297로 ‘조이’가 여비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3%나 된다. 여비명이 남노명에 비해 다양하지 않은 원인은 ‘조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이다.

3. 노비명의 단어 구조 분석

이 절에서는 ‘名’ 필드에서 얻은 노비명을 단어 형성의 원리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있는데, 峇外(바외), 金伊(쇠), 唵仁(느리-+-ㄴ), 毛吉(모질-+-ㄹ)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는 접두 파생어 次芴(츠+ 돌), 접미 파생어 芴伊(돌

+ -이),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결합한 小斤老末(작은+ 늙+ -이)를 찾을 수 있다.¹⁷⁾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는 畵同(개+ 똥)을 들 수 있다.¹⁸⁾ 마지막으로 현대국어의 ‘디딜방아’와 같이 ‘디디-+ -ㄹ #방아→디딜방아’와 같은 단어 형성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있다. 예를 들어 ‘屹屯介’는 ‘거두-+ -ㄴ #개→거둔개’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 단어로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¹⁹⁾ 다음 <표 5>는 노비명의 단어 구조를 품사별로 세분한 것이다.

<표 5> 노비명의 단어 구조

유형	구조	어근의 품사	예
단일어	어근	명사	助是(조이) ²⁰⁾ , 岩外(바외), 金伊(쇠)
		동사	毛立(모시-+ -어→모셔)
		형용사	鬚仁(느리-+ -ㄴ), 毛吉(모질-+ -ㄹ)
파생어	어근+ 접미사	명사	鬚伊(돌+ -이), 屎伊(똥+ -이), 自晉德(줌+ -덕)
		동사	齡疇(연-+ -돌)
		형용사	厚邑氏(두텁-+ -씨), ²¹⁾ 未邑女(밑-+ -녀)

(다음 면에 계속)

17) 어근과 접사의 판정은 일단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小斤(작은-), 自ㅍ(존-)’ 등은 접두사로 처리하였다. 이중 ‘小斤(작은-)’은 순서가 아닌 몸의 크기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통사적 구성에 해당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두사로 처리하였다. 이들을 접두사로 볼 때 ‘自ㅍ月[존월]’과 같은 예를 ‘접두사+ 한자 어근’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自ㅍ’ 자체를 어근적 단어로 보고 여기에 접미사 ‘月’이 결합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판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전자로 처리하였다. 도야지(道也之), 강아지(江牙之)도 통사적으로는 ‘돌+아지’, ‘개+아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형태 변화가 심하고 당시 화자들의 어원 의식을 알기도 어려우므로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한 단어로 보았다.

18) ‘同’은 보통 접미사로 쓰이지만, ‘개, 소, 말, 뱀’ 등 동물 이름 뒤에 쓰인 ‘同’은 실질 형태소 ‘똥’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 합성어로 처리하였다.

19) 이러한 해석이 현대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自ㅍ(존-)’이나 ‘小斤(자근-)’에 비해 ‘屹屯’이나 ‘於屯’의 빈도가 낮고 의미의 변이도 후자가 더 적다는 점에서 통사적 구성으로 처리하였다.

유형	구조	어근의 품사	예
파생어	접두사+ 어근 (+ 접미사)	명사	次疇(츠-+ 돌), 自卍者未(존-+ 놈+ -이)
합성어	어근+ 어근	명사	岔同(개+ 쫓), 松岩(솔+ 바위)
통사적 복합	어간+ 관형형 어미#명사		屹屯介(거두-+ -ㄴ #개), 於屯介(언-+ -운#개)
	수 관형사#명사		斗末(두 말), 邏末(서 말), 片末(너 말)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名(남노 1,152유형, 여비 957유형)에 보이는 단어의 구조를 분석해 보니,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노비명의 단어 구조 빈도

단어 구조	남노		여비	
	유형 빈도	총 출현 빈도	유형 빈도	총 출현 빈도
단일어	216	1,022	107	3,842
파생어	756	3,590	749	3,970
합성어	81	243	9	11
통사적 복합	23	43	35	67
불확실 ²²⁾	76	100	57	82
	계: 1,152	계: 4,998	계: 957	계: 7,972

- 20) 조이는 '핵심(核)'의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 단어의 지위가 확고했는지 확증하기는 어렵다.
- 21) '두딤씨(厚邑氏), 막돌(莫疇), 굿돌(耋疇)'의 경우 어근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령 두딤씨(厚邑氏)는 명사 두딤(蟾)과 형용사 '두딤-', 막돌(莫疇)은 명사 '暮'이나 동사 '막-', 굿돌(耋疇)은 명사 '굿(끝)'과 동사 '굿-(劃)'과 형태, 의미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노비명의 경우 동물보다는 외모와 관련된 어근이 많은 점, '莫古里(막-+오리)'와 같은 활용형의 존재 등을 근거로 이러한 어근의 품사를 일단 동사로 처리하였다.
- 22) '불확실'은 현 상태에서 단어 구조를 판정하기 어려운 미확정 단어들이다. 가령 '禾草里'는 단일어 '화초리(회초리의 방언)'와 파생어 '수풀+ 이'로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예들은 다른 호적 자료 노비명으로 연구를 확장한 후에야 그 범주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에 따르면, 남노와 여비 모두 유형 빈도상 파생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단일어의 순서이며, 총 출현 빈도에서도 파생어 > 단일어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노는 여비에 비해 합성어의 유형과 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개똥, 소똥, 말똥’ 등 ‘똥’ 관련 어휘가 남노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고빈도 어근과 접미사

3절의 분석 결과 중 단일어와 접미 파생어를 합친 후 이중 빈도 10 이상의 어근과 접미사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다음 〈표 7〉은 빈도 10 이상의 어근 목록이다.²³⁾

〈표 7〉 빈도 10 이상의 어근

남노			여비		
名	근대 국어	빈도	名	근대 국어	빈도
厝	돌	486	助是	조이	2633
淡沙(里)	담살-	300	莫	막-	856
莫	막-	280	𪛗	긋(끝)	254
礎	눗-(눗-)	207	礎	눗-(눗-)	250
𪛗	긋(끝)	152	件里	바(바)리	234
介	개	129	𪛗	눗-(눗-)	228
件里	바(바)리	109	早是	조이	215
厚邑	두텁-	97	介	개	204
斗	두/말	92	厝	돌	184
𪛗	엇-(얻-)	86	者音	좁	169
金伊	쇠	77	岑	좁	164

(다음 면에 계속)

23) 본고에서는 ‘名’ 필드의 표기 형태를 중심으로 어근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64회 출현하는 ‘江牙之’만 고빈도 목록에 올리고 1회 나타나는 ‘江牙只’는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명’을 중심으로 보면 ‘강아지’는 65회로 집계되는 셈이다. ‘명’을 중심으로 한 통계는 불확실 어근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전된 이후에 집계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판단에서 이 논문에서는 일단 ‘名’의 형태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于音’처럼 복수의 대응어가 존재하는 예는 ‘우름/웁’처럼 제시하였다.

남노			여비		
名	근대 국어	빈도	名	근대 국어	빈도
屎	똥	72	斗	두/말	107
傘	개	65	甘	감-	97
甘	감-	63	菴	엇-(얼-)	82
芴	늣-(늣-)	58	莫乃	막내	69
者音	좁	58	江牙之	강아지	63
響	감-/덤	57	彥	언(←얼-)	62
乞牙是	걸아이(거지)	52	牙只	아기	54
儉	검-	52	介伊	개	43
江牙之	강아지	51	儉	검-	24
麻堂	마당	47	廣邑	넙-(넙-)	24
牙只	아기	41	淡沙(里)	담살-	23
道也之	도야지	37	厚邑	두텁-	23
於屯	얼-	37	己里	기리/길-	21
凡	범	35	自音	좁	19
老郎	노랑	33	禾里	수리	18
己里	기리/길-	28	響	감-/덤	18
江床	강상(강아지)	27	光自里	빛즈리(빛자루)	17
彥	언(←얼-)	27	暹	(한, 두) 섬	17
文里	그리	26	于音	우름(울음)/움	17
岩外	바외(바위)	26	古分	곱-	16
岑	좁	24	屎	똥(똥)	13
斗應乞	둥걸	23	助時	조이	13
老(未)	늣	23	伐於之	벌어지(버러지)	12
北	북(부엌)	20	造是	조이	12
加音	감-/덤	18	傘	숯/잣(숯/작-)	12
岩回	바회(바위)	18	老郎	노랑	11
丕未	울미(울무)	14	岳只	아기	11
淡音沙(里)	담살-	10	傘	개	11
			凡	범	10
누적 빈도: 3,057			누적 빈도: 6,310		

앞서 <표 6>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단일어(1,022)와 파생어(3,590) 구성인 남노명의 합은 4,612이고 같은 구성인 여비명의 합은 7,812이다. 이를 <표

7)에 제시된 어근의 누적 빈도와 대비해 보면, 빈도 10이상의 어근이 단일어와 파생어 노비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남노명은 66.2%, 여비명은 80.7%에 이른다. 어근만 놓고 보더라도 여비 쪽이 남노 쪽보다 다양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접미 파생어에 쓰인 어근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은 남노는 ‘뫼(돌)’이고 여비는 ‘助是(조이)’이다. ‘莫(막-), 礎(늑-), 伴里(바리)’ 등의 어근은 남노와 여비 이름 모두에서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 ‘岩外(파외), 金伊(쇠)’는 남노명에서, ‘光自里(빛자리), 伐於之(벌어지)’는 여비명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다음 <표 8>은 접미 파생어에서 뽑은 빈도 10 이상의 접미사 목록이다.²⁴⁾

<표 8> 빈도 10 이상의 접미사

남노				여비			
名	형태소	어원 추정	빈도	名	형태소	어원 추정	빈도
里	-리(-이)	고유어 {이}	402	德	-덕	한자어	392
伊	-이	고유어 {이}	388	郎	-랑	한자어	377
金	-쇠	고유어 {쇠}	387	女	-녀	한자어	369
男	-남	한자어	314	進	-진	한자어	289
同	-동	고유어 {동}	189	禮	-례		232
厓	-돌	고유어 {돌}	176	分	-분	한자어	195
味	-미(-이)	고유어 {이}	155	心	-심	한자어	190
山	-산/-메/-되	고유어 {뫼}	125	切	-절	한자어	158
奉	-봉	한자어	112	春	-춘		154
之	-지	고유어	92	今	-금/쇠	고유어 {쇠}	131
先	-선		88	介	-개	고유어 {가히}	115
氏	-씨		76	丹	-단	한자어	108
三	-삼	한자어	68	助是	-조이	고유어	68
孫	-손	한자어	51	每	-매	한자어	63

(다음 면에 계속)

24) 崔範勳(앞의 1977 책)의 내용을 참조하여 접미사의 어원을 추정하였다. ‘어원 추정’이 빈칸으로 된 곳은 필자가 보기에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검토가 더 필요한 항목에 해당한다. 관형형 어미와 결합된 접미사인 ‘里’와 같은 형태는 { } 안에 원 형태소를 제시하였다.

남노				여비			
名	형태소	어원 추정	빈도	名	형태소	어원 추정	빈도
龍	-룡	한자어	47	辰	-진	한자어	55
石	-석/돌	고유어 {돌}	46	伊	-이	고유어 {이}	46
介	-개	고유어 {가히}	38	里	-리(-이)	고유어 {이}	45
宍	-포	한자어	34	眞	-진	한자어	32
發	-발	한자어	31	玉	-옥	한자어	30
立	-립		30	良	-량/랑	한자어	27
萬	-만	한자어	27	之	-지	고유어	27
種	-종/씨	고유어 {씨}	27	氏	-씨		24
生	-생	한자어	24	節	-절		22
卜	-복	한자어	19	蓮	-연(년)	고유어 {년}	21
用	-용	한자어	18	未	-미(-이)	고유어 {이}	18
選	-섬	고유어 {섬}	15	金	쇠	고유어 {쇠}	13
郎	-랑	한자어	13	烈	-렬	한자어	13
上	-상	한자어	13	江	-강		11
南	-남	한자어	11	同	-동	고유어 {-똥}	11
望	-망	한자어	10	月	-월		11
不	-불	고유어 {부리}	10				
누적 빈도: 3,036				누적 빈도: 3,247			

남노명 중 접미 파생어는 모두 3,295개인데 빈도 10이상인 접미사가 포함된 인명의 누적 빈도가 3,036이니 이들 고빈도 접미사가 포함된 인명의 비율이 전체 접미 파생어의 92.1%나 된다. 여비의 경우도 전체 접미파생어 3,447개 중에서 빈도 10이상인 접미사가 포함된 인명의 비율이 94.1%이다. 이는 어근에 비해 접미사의 다양성이 더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법 형태소가 어휘적으로 폐쇄 집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표 8〉을 통해, 남노와 여비에 따라 고빈도 접미사 목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노의 경우는 {-이} 계열인 ‘里, 伊, 味’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金 > 男 > 同 > 疔’의 순서인데, 이 중 ‘男’을 제외하면 고유어계 접미사가 다수이다. 반면 여비는 ‘德 > 良 > 女 > 進 > 禮’의 순서로 대부분 한자계 접미사이다. 남노와 여비명에 공통되는 고빈도 접미사 ‘里, 伊, 味, 金, 同, 疔, 介, 石’ 등은 어원적으로 고유어에 기원을 둔 것들이다.

IV. 고유어계 노비명의 의미 부류 분석

이 장에서는 고유어계 노비명을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려 한다. 의미 분류를 하려면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특정 차자 표기에 대한 대응어의 형태와 의미를 확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된 의미를 분류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노비명을 분석하다보면, 표기, 형태,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光自里-[빛자리]-{빛자루}’와 같은 예도 있지만 하나의 표기에 대해 형태와 의미가 복수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가령 ‘響’은 음으로 읽으면 [감], ‘뜻+음’으로 읽으면 [덤]이 되는데, 형태를 [감]이라고 할 경우는 의미상 ‘감-(黑)’에, [덤]이라고 할 경우는 ‘더부살이’에 대응한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음운, 형태, 의미상 복수의 고유어와 대응이 성립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명을 의미 부류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였다.²⁵⁾ 또 ‘小斤(순서/외모)’, ‘自卍(외모/성품)’처럼 복수의 의미 대응을 보이는 예도 의미 부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미 부류 선정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어의 사전적 뜻풀이를 기준으로 상위어를 선정하되,²⁶⁾ 崔範勳(1977)에 제시된 고유 인명의 작명관도 참조하여 ‘동물, 식물, 외모, 성품, 장소, 시간, 도구, 암석, 금기, 소유, 인물, 단산

25) 이 유형에 속하는 주요 예로는 加音(덤/감-) 외에 伴里介(바리/버리-), 於屯斗(두/말) 등이 있다. 그런데 崔範勳은 ‘於屯’을 ‘어두운(暗)’으로 해석하고 ‘부정적 성격’의 작명관으로 해석하였지만(최범훈, 앞의 1977 책)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만약 어간이 ‘어둡-’이라면 ‘어드븐’과 같은 활용형이 있을 법하다는 점, 둘째, 於屯(연-)과 의미적 연관을 가지는 ‘懿(연-)’이 존재하는 점이다.

26) 가령, 伐於之(버러지→벌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뜻풀이 되어 있으므로 ‘동물’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상위어를 중심으로 범주화하면 ‘사람’에 속하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렇게 해서 는 노비명의 작명 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위 범주 ‘사람’은 아무개(여성을 지칭하는 것 말고는 인명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조이’, 남성임을 드러내는 ‘놈’ 종류), 더부살이(답사리 류), 기타 인물(거지, 곱추)로 세분하였다.

기원' 등의 주요 분류 기준을 정하였다.²⁷⁾

본고에서는 이러한 원칙 아래 單意를 가지는 고유어계 노비명의 의미를 분류해 보았는데, 다음 <표 9>는 의미 부류상 상위 10위에 드는 예들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²⁸⁾

<표 9> 노비명의 의미 부류

순위	남노		여비	
	부류	예	부류	예
1	암석	厓金(돌쇠), 峇外(바외)	아무개	岳只(아기), 助是(조이)
2	동물	江牙之(강아지), 道也之(도야지), 斗去非(두거비), 馬牙之(마아지)	단산기원	莫金(막금/막쇠), 耨春(긱춘)
3	단산기원	莫金(막쇠), 耨金(긱쇠)	잠	者音牙(좀아), 者音玉(좀옥), 者音進(좀진)
4	더부살이	入沙里(드사리), 多夫沙里(더부사리), 淡沙里(담사리)	동물	介德(개덕), 小阿只(소아지=송아지), 伐於之(벌어지=버러지)
5	외모	甘同(감동), 厚邑種(두딤뻘)	외모	古邑丹(곱단=곱-), 汝邑德(넙덕=-넙적하-), 小一德(작덕=작-)

(다음 면에 계속)

27) 崔範勳(앞의 1977 책)에 제시된 용어 중 '용모→외모, 성격→성품, 기구→도구, 똥·부랄→금기로 바꾸고 '懿(연-)' 유형에 대해서는 '소유' 범주를 설정하였다. '莫'과 '耨'은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런 이름을 가진 노비가 순서상 모두 막내인 것도 아니고 莫右里(막+-우리), 莫世(막+-세)와 같은 활용형에서 '막-(閉)'의 의미가 드러나므로 '막-(閉), 긱-(止)'과 같이 단산에 대한 기원을 기본적인 뜻으로 보았다.

28) 괄호 안에 근대 국어나 방언 어형을, 필요한 경우 '=' 오른쪽에 현대어를 적었다. 이러한 의미 부류와 그 순위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어원 관정에 대한 다른 증거가 보강될 경우 바뀔 수 있다. 가령 '件里'가 그릇 혹은 '버리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면 이 순위는 바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차재은(『대구호적 노비명의 작명 방식에 관한 고찰』, 『대구호적과 동아시아 인구자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36~39면)의 의미 부류와 이 논문의 의미 부류는 기준과 순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단성 호적의 노비명에 대한 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대구부 동상면 호적의 고유어계 노비명에 관한 계량적 고찰

순위	남노		여비	
	부류	예	부류	예
6	금기	介屎(개똥), 金叱同(쇠똥), 介不里(개부리 = 개불알), 牛不里(소부리)	암석	彗進(돌진), 岩外(바외)
7	쇠	金伊(쇠), 金叱夢(쇠몽)	소유	彗叱禮(엇례), 齡今(엇금)
8	소유	彗立(언립), 齡金(엇쇠)	도구	光自里(빛자리), 小古里(소고리), 禾里德(수리덕)
9	도구	呑在味(오재미), 串之(곶이), 光自里(빛자리 = 빛자루), 麻致(마치 = 망치)	더부살이	加夫德(더부덕), 淡沙里(담사리)
10	아무개	牙只(아기), 老未(노미), 巨時只(거시기), 助是(조이)	장소	九之(구디 = 구덩이), 老卍德(논덕), 夫億(부억), 坪乙分(들분)

〈표 9〉에 제시된 10개의 의미 부류 중 ‘단산 기원, 더부살이, 도구, 동물, 소유, 암석, 아무개, 외모’ 8개가 남노명과 여비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남노명은 여비명에 비해 ‘금기, 쇠’가, 여비명은 ‘잡, 장소’가 고빈도 의미 부류에 포함되는 점이 다르다. 특히 남노명에는 똥이나 성기와 관련된 고유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데 비해 여비명에서는 이런 사례가 매우 드물다. 여성 이름이 금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노명과 여비명의 의미 부류는 순위 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남노의 경우는 암석이 가장 고빈도인 반면, 여비에서는 아무개 유형의 빈도가 가장 높다. 남노에서는 암석이 가진 단단함을 남성성, 건강, 장수 등과 연관시키려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쇠’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여비명에서는 인명이 가진 개성적 측면보다는 무명성이 두드러진다.

〈표 9〉를 통해 추상화할 수 있는 고유어계 노비명의 작명 방식의 특징은, 구체성 혹은 즉물성(도구, 동물, 암석, 외모, 장소), 거주나 소유 형태(더부살이), 무명성 혹은 몰개성(아무개), 비하(금기, 동물, 외모 중 부정적 인상)라는 핵심어로 정리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人性보다 物性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고유어계 노비명 작명 방식의 특징이다.

V. 결론 및 과제

본고에서는 고유어계 어근을 중심으로 17~19세기 대구 동상면 호적의 노비명을 분석하고 여기에 나타난 작명 방식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고유어계 어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유어 판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차자 표기 독법으로 생성 가능한 문자열 중에 고유어와 음운, 형태, 의미 대응이 비교적 분명한 예들만을 고유어로 판정하고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불명확한 경우는 불확실 어근으로 분류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고유어 노비명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비보다는 남노명에서 절대 빈도와 유형 빈도가 모두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비명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요 원인은 '助是(조이)'의 비율이 높은 데서 찾을 수 있었다. 고유어 노비명의 구조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해 보니 접미 파생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빈도 어근과 파생 접미사의 목록은 한정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접미사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어근과 접미사 목록이 가지는 한정성은 그대로 노비명의 전형성과 연결된다.

고유어 노비명을 의미 부류로 분석한 결과, '단산 기원, 더부살이, 도구, 동물, 소유, 암석, 아무개, 외모'의 의미 특성이 남노명과 여비명에 공통되며 여비명에서는 무명성(아무개)이, 남노명에서는 똥이나 성기와 같은 금기어의 사용이 특징적임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人性보다 物性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고유어계 노비명 작명 방식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본고는 전산화된 자료를 이용한 덕분에 남노와 여비명으로 나누어 계량화를 시도할 수 있었으나 지면상 노비명에서 얻은 어휘 목록이나 표기 형태를 모두 제시할 수는 없었다. 차후에는 전산화된 단성 호적이나 대구 서상면 호적을 대상으로 본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인명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분석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은규,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용자 사전』, 제이앤씨, 2006
- 장세경, 『한국 고대 인명사전』, 한양대 출판부, 2007
- 정석호, 『경북동남부 방언사전』, 글누림, 2007

- 金敬淑, 『韓字研究—丹城戶籍大帳을 中心으로』, 중문출판사, 1996
- 南豐鉉, 『借字表記法研究』, 단대출판부, 1984(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1)
- 白斗鉉, 『嶺南 文獻語研의 音韻史 研究』, 태학사, 1992
-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 권기중, 「대구호적 전산자료 소개」, 『대구호적과 동아시아 인구자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1~9면
- 박성종, 「吏讀에서의 訓讀에 대하여」, 『口訣研究』 8, 구결학회, 2002, 129~144면
- 박준규, 「俛仰亭 宋純의 分財記 고찰—奴婢名에 나타난 作名類型을 중심으로」, 『古詩歌研究』 19, 2007, 139~166면
- 安秉禧, 「初期 한글標記의 固有語 人名에 대하여」, 『언어학』 2, 언어학회, 1977, 65~72면
- 曹圭泰, 「朝鮮 時代 女子 이름의 語學的 考察」, 『女性問題研究』 9, 대구효성카톨릭대, 1980, 283~296면
- _____, 「민적부에 나타난 여자 이름 연구」, 『女性問題研究』 10, 대구효성카톨릭대, 1981, 297~306면
- 차재은, 「대구호적 노비명의 작명 방식에 관한 고찰」, 『대구호적과 동아시아 인구자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7~44면
- 崔範勳, 「漢字借用表記體系研究」, 『한국학연구총서』 12,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1977
- _____, 「漢字借用 固有語人名表記 調査研究—忠北清原郡 除籍簿를 資料로」, 『國語學』 9, 국어학회, 1980, 101~121면

A Statistical analysis on the Names of Male and Female Servants in the Census Register of Daegu-Bu Dongsang-Myeon

Cha, Jae-e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le and female servants' native names in the census register of Daegu-Bu Dongsang-Myeon and to inquire out a notable feature of naming the servants. For this study, I extracted 12,970 native names in computerized census register data of Dongsang-Myeon and then analyse them by statistical methods.

Statistical analysis on the names of the servants shows that the male servants' names have more type frequency than female servants' names (1,152: 957 types). The female servants' names are not diverse because 助是 (it means a woman) is 41.3%.

Morphological analysis on the names of servants shows that around 71.8% of all the male servant's names and 49.7% of all the female servants's names in this data are derivative words. The items of its roots and suffixes in high frequency is very limited. The roots, such as 石(a stone), 莫(stop), 蕊(be late), 禿(stop), 介(a dog), etc. and the suffixes, such as 伊(a person), 金 (iron), 男(a man), 女(a woman) are used frequently in the servants' names.

Semantic analysis on the names of servants shows that the male servants' names and the female servants' names have common semantic classes, prayers for natural cessation of childbearing, domestic servants, instruments, animals, possessions, stones and rocks, somebody, outward appearances, etc. and tabooed words related to excrement, sexual organs are used only in the male servants' names. The analysis on the servants' names shows that the servants are regarded as a thing not a person.

Key words : Dongsang-Myeon's census register, names of male and female servants, frequency, feature of naming